

■ 영화



조제

- 감독: 김종관
- 출연: 한지민 (조제 역), 남주혁 (영석 역), 허진 (다복 역), 박예진 (혜선 역), 조복래 (철호 역), 이소희 (수경 역), 이성욱 (최경 역), 김금순 (현남 역), 장세원 (상준 역), 윤혜리 (희영 역), 유영현 (성우 역), 정이서 (나영 역), 김승비 (수빈 역), 설창희 (현영 역)
- 러닝타임: 117분
- 등급: 15세 관람가
- 개봉일: 2020년 12월 10일
- 장르: 로맨스, 드라마

※ 유료 다운로드: <https://serieson.naver.com/movie/detail.nhn?viewSeq=417008&prodNo=5819492>

[줄거리]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집, 그곳에서 책을 읽고 상상하며 자신만의 세계를 살고 있는 '조제'.

우연히 만난 그녀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 '영석'은 천천히, 그리고 솔직하게 다가가기 시작한다.

하지만 처음 경험해보는 사랑이 설레는 한편 가슴 아픈 '조제'는 자신에게 찾아온 낯선 감정을 밀어내는데……

기억할 거야, 너와 함께한 모든 순간을!

자신을 '조제'로 불러달라는 그녀.

처음 만난 그날부터 '조제'는 '영석'에게 잊을 수 없는 이름으로 남는다.



■ 신간

이완의 자세



여탕에서 사람들의 때를 밀어주며 밥벌이를 하는 세신사 엄마와, 여탕에서 자랐지만 무용가로 성공하여 여탕을 탈출할 꿈을 꾸는 딸의 이야기가 유쾌하면서도 따뜻한 필체로 그려진다. '똥'에 대한 고찰에서부터 여탕을 드나드는 여자들의 고단한 삶과 내밀한 속내, '성공'하지 못했지만 '실패'하지 않은, '다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뒷모습까지, 김유담은 능수능란하면서도 담백하게 삶의 면면을 고루 담아낸다. 고달프고 쓸쓸한 삶을 날카롭게 직시해내는 작가의 면모가 여실히 드러나면서도, '그래도 괜찮다'는 다독임을 얻을 수 있는 단단하고 따뜻한 작품이다. (인터넷교보문고의 '책소개' 중에서)

■ 김유담 지음 | 창비 펴냄 | 192쪽

www.unicaresurgery.com

애나하임

쾌적한 병원시설에서 만족한 의료시술을 경험하십시오.

UNICARE SURGERY CENTER

유니케어 수술센터
Tennis Elbow 시술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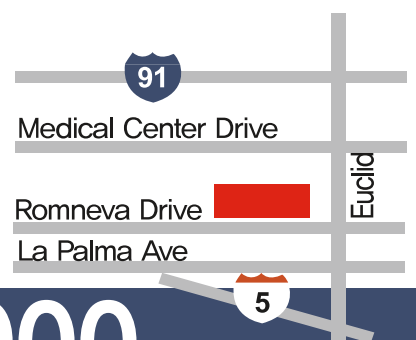


- 테니스엘보우 시술
- 관절수술/골절수술/척추수술
- 각종 통증수술

- ▶ UNICARE SURGERY CENTER
- ▶ Orthopedic/Podiatry/Plastic/Hand & General Surgery
- ▶ 줄기세포(Stem Cell), 자가혈청치료(PRP)
- ▶ 각종 수술 상담

미국보드 전문의와 최신 의료장비와 진료시스템으로 정확한 진단, 시술을 해드립니다.

각종 PPO보험/교통사고, 직장상해보험/메디케어 취급, 여행자보험, 기독의료상조



UNICARE SURGERY CENTER

714-332-5000

1741 W. Romneva Dr. #B, Anaheim, CA 92801